

# 코퍼스를 이용한 한국어 지각동사의 논항구조 분석

정유진, 강범모, egyg@chollian.net, bmkang@kuccnx.korea.ac.kr,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 A Corpus based Analysis of the Argument Structure of Korean Perception Verbs

Eu-gene Chung, Beom-mo Kang,  
Dept. of Linguistics, Korea University

### 요약

동사의 다의성은 결합되는 어휘에 따른 의미확장으로 설명된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지각동사의 기본의미가 갖는 논항관계를 바탕으로 코퍼스를 이용하여 다른 어휘와의 연어관계를 관찰함으로써 공기하는 어휘를 체계화시키고 기본의미와 의미확장의 실제 사용빈도를 조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 지각동사들의 의미양상을 기술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각동사란 감각행위 자체, 즉 주체가 감각기관을 통해 자극을 인지하는 행위동사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본고의 목적은 두 가지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첫째, 한국어 지각동사들의 기본 의미를 바탕으로 어휘의 논항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각 어휘가 실제 문장 속에서 다른 성분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지각동사의 논항관계를 바탕으로 각 어휘의 의미확장을 알아보고자 한다. 어휘는 하나의 의미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문장 속에서 결합되는 논항에 따라 그 의미가 전용(轉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결합력을 살펴보는 하나의 방법으로 코퍼스를 이용하여 서로간의 언어(collocation) 관계를 관찰하여 술어에 어떤 논항이 결합되는지 고찰한다. 이 과정에서 공기되는 논항에 따라 술어의 의미가 달라지는 다의성 현상을 살펴 보고자 한다.

## 2. 시각동사

### 2.1 논항구조

시각동사의 대표형인 '보다'는 의미확장 범위가 큰 만큼 공기하는 논항과 구조가 다양하다. 따라서 기본의미와 확장의미를 파악하는데는 보다 자세한 구분의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국어에서 동사의 기본 의미를 안다는 것은 그 동사가 어떠한 고유논항을 갖는가를 설정하는데 있어 선행되어야 할 일이다. 시각동사 '보다'의 기본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ㄱ.보다 : 주체가 사물의 모양을 눈을 통하여 알다

L.철수는 나무라듯이 영이를 보았다.

보다 : ( A T )<sup>1)</sup>

사역형 : 나는 철수에게 영이를 보았다.

보이다 : ( A G T )

ㄴ.어머니는 아들을 공원에서 보았다.

보다 : ( A T : )<sup>2)</sup>

사역형 : 나는 어머니에게 아들을 공원에서 보았다.

보이다 : ( A G T )

⋮  
L

시각동사 '보다'는 두 개의 고유논항(X1, X2)을 갖는 2항술어이다. 이런 2항 구조에서 X1은 행위주 또는 경험주의 의미역이, X2 자리에는 대개 대상의 의미역이 오게 된다.

(1ㄴ)에서 주어 자리에 나타난 '철수'는 '의도', '다른 참여자에 대한 사건의 유발', '독립된 존재'의 원형 행위주역<sup>3)</sup>을 갖고 있다. 그리고 '영이'는

1) 본고에서 사용하는 의미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행위주(Agent) T:대상(Theme) G:목표(Goal) E:경험주(Experiencer) L:처소(Location) S:근원(Source) I:도구(Instrument) St:자극(Stimulus)

2) 동사와 같은 줄에 표시되는 의미역은 필수논항이며 :에 의해 다음 줄에 표시되는 것은 부가어이다.

3) Dowty(1991)에서는 원형 행위주(Proto-Agent Role)의 특성을 5개로 밝히고 있다.

① 사건이나 상태에 의도적 참여, ② 지각/인지, ③ 다

‘다른 참여자와 상대적으로 정태적’이라는 원형 대상역<sup>4)</sup>을 갖고 있다. 논항에 관련된 문법기능의 명칭을 보면 X1이 주어가 되고 X2는 목적어가 되며 한국어의 특성상 주어는 흔히 문장에서 생략되기도 한다. X1에 올 수 있는 논항은 감각의 주체가 되는 사람인 반면 지각의 대상이 되는 X2에 오는 논항은 다양하다. 이때 행위주역은 의지, 행위 유발, 인지, 그리고 이동의 특성을 갖고 있으나 의지나 행위 유발 또는 의지만으로도 행위주의 의미역은 성립한다. 대상역은 변화, 대상 변화역, 비독립적 존재 등의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사역형도 가능한데 한국어 3항술어의 기본 구조가 (A G T)이므로 파생 과정에서 새로운 행위자는 행위주역인 A로 나타나고 본래의 행위자는 G(목표)로 되며 대상의 의미역은 그대로 유지되는 논항구조의 변형을 겪게 된다.

시각행동은 일반적인 동작 타동사의 경우와 달리 대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않으나 동작의 주체자는 외부에서 관찰될 수 있는 신체적 동작 외에 시야나 방향을 의식하고 그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내적 동작이 필요하므로 의지가 행위주역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 실제로 고려대학교 한국어 말모듬 1 용례를 살펴보다라도 주어가 생략되지 않는 한 행위주의 의미역을 갖는 것은 의지를 가진 <사람> 또는 <유정물>이라 할 수 있다.

(2) ㄱ. (나는)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는 것을 [보면<sup>5)</sup>] 한편으로 두려운 생각이 들기도 한다.

ㄴ. (고양이/ #나무)가 생선을 보고 있다.

(2)의 주어는 전형적인 행위주역의 특성인 대상인지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 주어가 생략된 형태로 사용된 경우도 가능한 주어를 생각해 보면 이들도 의지를 가진 생명체가 됨을 알 수 있다. ㄴ에서는 사람이 아닌 동물이 주어가 된 형태로 이는 시각 행동이 외부에 의해 관찰될 수 있는 동작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다’의 기본 의미가 취하는 다른 고유논항인 대상역은 <사물>, <사람> 등의 구체적인 것과 <방향>, <행위> 등의 추상적인 것이 모두 가능하다.

대상역에 나올 수 있는 명사는 보는 동작을 통해 무엇인가를 알아 느낄 수 있는 대상으로 지각의 대상이 올 수 있으며 이들 지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추상적인 특징(현상, 상황...)을 지닌 경우이고 어떤 동작을 통해 지각하는 것은 구체적

사물의 경우가 된다. 대상역의 주된 기능은 동사 ‘보다’의 동작 대상이라기 보다 지각 대상이 되므로 동사 ‘보다’가 지각동사에 속하게 됨을 뜻한다.

실제 고려대학교 한국어 말모듬 1(강범모, 김홍규, 1996)<sup>6)</sup> 자료를 분석한 결과 52100개의 용례를 무작위 추출로 1200개로 축소한 후 보조동사나 형용사가 아닌 본동사로 사용된 것은 62.9%인 755개로 나타나며에서 ‘보다’의 기본 의미 용례가 취한 주요 대상역은 다음과 같다.

인 물	이름(혜린, 우석, 간난이, 진우...), 사람, 대명사(나, 너, 그, 그녀, 그분, 너희), 학생, 소매치기, 조상, 중대장, 처남, 이모, 임금님, 인물, 부인, 이방인, 친구...
서 면	책(성경, 사도행전, 가이드북, 탐험기, 그림책), 서류, 시, 종이, 작품, 인용시,...
신 체	얼굴, 몸, 발등, 가슴...
모 습	광경, 꼴, 모양, 송환(되는 모습), 수행, 모습, 전망, 미모...
가 구	텔레비전, 테이블...
소 품	시계, 그림, 칼...
자 연 물	하늘, 숲, 물...
장 소	집, 데, 곳, 시내, 절...
방 향	바깥, 집안, 창밖, 쪽...
기 타	대명사(이거, 저것, 그것, 무엇, 무얼), 경우, 수요, 숫자, 고향, 시간, 교육, 구성, 전력, 문장, 문제, 접수, 규모...

말모듬 자료에서 목적어를 찾아 표시하여 Wordcount 프로그램(강범모 1997)을 사용하여 추출한 후 목적어를 살펴본 결과 문장에서 목적어가 빈번히 생략됨을 알 수 있는데 본동사 755개 가운데 총 107번으로 전체의 14.1%를 차지한다. 보통 생략된 대상역은 이전 문장에 나왔거나 관용적인 표현 또는 대화상에서 쉽게 알 수 있는 것에 한정됨을 알 수 있다. 이외에 문장에 드러난 대상역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사람>으로 행위자가 그 모습 인식하는 뜻으로 사용된다. 이를 통해 ‘보다’라는 시각동사에는 대상의 형상을 지각한다는 의미를 포용할 수 있다.

시각동사 ‘보다’의 부가어를 보면 의미역을 갖고 있는 부가어를 함께 쓰기도 한다. 이 때 부가어는 처소격, 도구격이란 의미기능을 지닌다.

(3) ㄱ. 바로 눈앞에서 소매치기 [보고도] 아무 말도 못한 채 가버리다니 얼마나 비겁한가. (처소)

ㄴ. 문자는 눈으로 [보기만] 하는 부호가 아니라 입으로 읽을 수 있는 음향을 가졌

른 참여자에 대한 상태 변화나 사건 유발, ④ 다른 참여자의 의지와 상대적 이동, ⑤ 독립된 존재

#### 4) Dowty(1991)에서의 원형대상역 특성

① 상태 변화, ② 대상변화역, ③인과적으로 영향받음, ④ 다른 참여자와 상대적으로 정태적임 ⑤ 비독립적 존재

5) [ ] 표시가 포함된 예문은 고려대학교 한국어 말모듬 1에서 인용한 것이다.

6) 고려대학교 한국어 말모듬1은 1000만 어절 규모의 현대 한국어 문어 및 구어 코퍼스이다. 그 설계와 구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강범모, 김홍규(1996)에 소개되어 있다. 그리고 고려대 말모듬을 이용한 초기 문법 연구 중에는 강범모, 차준경(1996)이 있다.

다. (도구)

시각동사 '보다'가 기본의미로 사용될 때는 (A/E T)의 논항구조가 성립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다'가 다른 의미로 사용될 경우 어떠한 논항구조를 갖게 되는지 알아보자.

(4)ㄱ. 본성 자체를 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정의가 내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ㄴ. 민족 문화의 성장과 정지는 민족 문화의 완성이 아니라 사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에서 '보다'는 '판단하다, 평가하다'의 의미로 사용되며 기본의미로 사용될 때와는 달리 사역형이 성립하지 않는다.

(5)ㄱ. 보다 : 주체가 X1을 X2로 판단하거나 평가하다

ㄴ. 나는 본성 자체를 선한 것으로 본다.

보다 : ( A T[ t1 t2 ] )

사역형:??영이는 나에게 본성 자체를 선한 것으로 보였다.

??( A G T[ t1 t2 ] )

'보다'가 기본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 사용될 때는 2항술어라 하더라도 (A T[t1 t2])의 논항구조를 갖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때 t1이나 t2 위치에는 보문형이 와도 무방하다. 이런 문형의 경우 통사적인 입장에서는 SC(Small Clause)로 다루는데 내부 성분에 의미역을 할당하는데 이견이 있으며 (5)의 예문에서 나오는 보문의 경우도 T가 아닌 P(Proposition)로 설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또한 하위범주화와 의미역 할당의 일관성에 대해서도 좀더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처럼 동사는 논항구조에 따라 의미의 변화를 구분하기도 하나 비록 같은 논항구조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취하는 대상격에 따라 기본의미 외에 다른 의미로 확장될 수도 있는데 이는 다음에서 보도록 한다.

### 1.2 '보다'의 다의성

의미적 유연성은 어떤 의미에서 다른 의미가 새로 파생될 경우에 원래의 의미와 새로운 의미 사이에 의미적 연관성이 계속되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서 원래의 의미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사용되면 그 의미들은 연상 관계에 있는 다의성이 되는 것이다.

이런 다의적인 관계 속에서 '보다'의 기본의미를 찾아본다면 '사물의 모양을 눈으로 통하여 알다'일 것이다. 이는 주체의 동작을 나타내며 그 작용은 다른 대상에 미친다. 이는 주체(NP1)가 객체(NP2)를 향하여 시선을 주는 것으로 주체의 동작으로 그 작용이 다른 대상에 미치게 된다.

'보다'의 논항구조를 (X1 X2)의 2항술어임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보다'가 시각동사의 기본의

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 사용될 때 갖게 되는 의미역은 다소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다. X1의 자질을 보면 동작의 주체인 행위주가 되기도 하며, 지각에 대한 경험의 주체인 경험주가 되기도 한다. 경험주로서의 X1은 구체적인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에 대한 자각을 경험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행위주인가 경험주인가를 구분하는 기준은 동작에 대한 주체의 의도성(intent)의 유무에 따른다. 의도성이 있으면 동작주이지만 의도성이 없다면 경험주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X2와의 공기관계를 살펴보면, 행위주일 때 X2는 동작에 의한 지각의 대상이지만, 경험주일 때는 경험에 의한 자각의 대상이 된다.

요컨대, 동사 '보다'는 동작성과 지각성을 겸비한 동작적 지각동사로서 [NP1이 NP2를--]과의 공기 관계에서 '동작주-동작대상'뿐 아니라 '경험주-경험대상'의 관련성을 갖는다.

지각동사 '보다'를 우리말 갈래 사전(박용수, 1989)에서 찾아보면 그 의미가 17가지로 분류되나 그 의미를 좀더 세분하면 19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각동사 '보다'는 의미확장의 폭도 크다.

- (6)1. 사물의 모양을 눈을 통하여 알다 (산/얼굴을 보다)
- 2. 알려고 두루 살피다 (상황/맥을 보다)
- 3. 구경하다 (굿/영화를 보다)
- 4. 보살피어 지키다 (아이를 보다)
- 5. 일을 맡아서 하다 (사무/사회를 보다)
- 6. 누려서 가지다 (재미를 보다)
- 7. 시험을 치르다 (시험/면접을 보다)
- 8. 팔거나 사라 가다 (장을 보다)
- 9. 값을 부르다 (절반 값밖에 안 본다)
- 10. 똥·오줌을 누다 (소변을 보다)
- 11. 참고 기다리다 (너 보자 보자 하니까!)
- 12. 좋은 때를 만나다 (좋은 세상을 볼 때)
- 13. 몸소 당하다 (손해/이익/욕을 보다)
- 14. 자손을 낳거나 떠느리·사위를 얻어서 들이다 (사위/손자를 보다)
- 15. 남의 계집이나 사내를 몰래 사귀다 (새서방을 보다)
- 16. 음식상을 차리다 (상을 보다)
- 17. 운수 등을 점치다 (사주를 보다)
- 18. 어떤 목적 아래 만나다 (나 좀 봅시다)
- 19. 어떤 결과에 이르다 (끝장/합의를 보다)

'보다'의 의미확장을 고려대학교 한국어 말모듬 1을 이용해 그 빈도를 살펴보면 앞에서 언급한 대로 1200으로 축소한 자료 중 보조용언이나 보조 형용사를 제외한 순수한 본동사로서의 '보다'는 755개로 추출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기본의미가 아닌 의미확장으로 사용된 경우는 233개로 약 30.8%이다. 확장 의미 가운데 2, 3, 4번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는 '보다'의 기본의미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 다른 것들은 거의 관용적인 연어 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런 관용적 연어 구성을 갖는 대상격을 보면 다음과 같다.

8논치, 6결과, 5재미, 4일, 4시험, 4손해, 3선, 2머느리, 2경리, 2이득, 2결말, 2장, 2끝장, 1손실, 1타결, 1용변, 1속셈, 1이익, 1가능성, 1일치, 1배설물, 1잠자리, 1역할, 1번, 1완성, 1맛, 1손, 1점, 1애, 1전전, 1낭패, 1합의, 1애배, 1효과, 1곳...

‘보다’가 이처럼 지각행위가 아닌 의미로 사용될 경우 (X1 X2)의 논항구조에서 주체인 X1은 경험주격의 의미역을 갖고 X2는 대상역을 갖고 있다. 어휘의 의미확장은 언어 사용의 경제성을 살리는 것으로 기본의미와 같은 논항구조라 하더라도 그 의미역은 달리 나타나기도 하며 파생형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 3. 정각동사

#### 3.1 논항구조

고려대학교 말모듬 1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15752개의 용례를 1314개로 축소한 ‘듣다’ 중 다른 동사의 활용이나 동음이의어가 아닌 청각의미를 지닌 본동사로 쓰인 것은 약 52.0%인 683개로 나타난다. 청각동사로서의 기본 의미를 통해 ‘듣다’가 어떠한 고유논항을 갖는가를 살펴보도록 하자.

(7) ㄱ. 듣다 : 주체가 소리나 내용을 귀로 느끼어 알다

ㄴ. 철수는 공원에서 음악을 들었다.

듣다 : ( A : T )

L

피동형 : 공원에서 음악이 철수에게 들렸다.

들리다 : ( T E )

:

L

ㄷ. 철수는 영이에게서 선생님의 소식을 들었다.

듣다 : ( A : T )

S

피동형 : \*영이에게서 선생님의 소식이 철수에게 들렸다.

청각동사 ‘듣다’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고유논항(X1, X2)을 갖는 2항술어이고 부가어로 대상의 근원(Source)이나 처소가 쓰이기도 한다. 이런 2항 구조에서 X1은 행위주, 경험주의 의미역이, X2 자리에는 대개 대상의 의미역이 오게 된다.

(7)에서 ㄴ과 ㄷ은 파생형의 구성에서 차이가 나는데 부가어가 대상의 출처를 밝히는 구조인 ㄴ은 피동형이 성립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처소적인 경우는 피동형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피동형에서는 의미격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본문의 행위주격이 피동형에서는 경험주격을 갖게 된다. 이는 주체가 동작에 의해 통제 받는 위치로 변하게 되기 때문이다.

‘듣다’의 대상역은 ‘음향성’이 있는 어휘에 한정된다. 청각행동은 일반적인 동작 타동사의 경우와 달리 대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보다 동작의 주체자가 외부 대상에 반응하는 것으로 특별한

신체적 동작 없이 자극원을 의식하고 그에 주의할 집중시키는 내적 동작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식의 있는 주체만이 행위주가 될 수 있다. 실제로 고려대학교 한국어 말모듬 1 용례를 살펴보더라도 주어가 생략되더라도 행위주의 의미역을 갖는 것은 의지를 가진 <사람> 또는 <유정물>임을 알 수 있다.

(8) ㄱ. 김선생은 교회 앞을 지나다가 종소리를 들었다.

ㄴ. 멀리서 들려 오는 것은 기차 소리였다.

‘듣다’의 기본 의미가 취하는 다른 고유논항인 대상역은 청각의미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항목이며 이들의 주된 기능은 동사 동작 대상이라기보다 지각 대상이 되므로 동사 ‘듣다’가 지각동사에 속하게 됨을 뜻한다. 대상역은 동작을 통해 어떤 변화를 갖지 않고 동작의 행위주에 대해 어떤 지각을 주는 대상이 된다.

실제 고려대학교 한국어 말모듬 1에서 ‘듣다’의 기본 의미 용례가 취한 주요 대상역은 다음과 같다.

이야기 /말	얘기, 이야기, 말씀, 의견, 사연, 일화, 반말, 군담, 속삭임, 민담, 속담, 수다, 발언, 한마디, 낱말, 조선말...
내용	설명, 강의, 발표, 대답, 방송, 증언, 사실, 일, 라디오, 답변, 엽불, 예, 경과, 용도, 경위, 말대답, 경험담, 웅변, 무전, 원성, 고백, 내용, 수업, 의사, 부음, 강연, 이임사, 사항, 궤변, 인터뷰, 뉴스, 전언, 뜻, 결과, 질문, 처지, 신년사, 축원문, 문제, 동의치료법, 생활, 해독, 소식, 실황...
소리	소리, 목소리, 새소리, 종소리, 기침 소리, 상여소리, 울음소리, 웃음소리, 물소리, 숨소리, 신발소리, 잡음, 저음, 곡성, 총소리, 총계소리, 고탈, 헛소리, 비명, 비명소리, 말소리...
음악	음악, 노래, 볼레로, 노래가사, 연주, 전원교향곡, 협주곡, 창가, 선율, 테이프, 윙광, 플루트, 한국...
기타	것(보문), 이름, 영검, 방향, 그것, 최면술...

이 대상들을 좀더 크게 분류하면 ‘말, 음악, 소리, 내용, 기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들 가운데 대상역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거의 모든 명사와 합성이 가능한 ‘이야기, 내용, -소리’로 행위자가 자극원의 내용을 인식하는 뜻으로 사용된다. 이를 통해 ‘듣다’라는 청각동사에는 대상의 실체나 내용을 지각한다는 의미를 포용할 수 있다.

문장에서 목적어는 빈번히 생략되는데 총 153번으로 전체의 22.4%를 차지한다.

청각동사 ‘듣다’의 부가어를 보면 단순히 부사를 첨가하여 의미를 보충하기도 하며 이 외에 의미역을 갖고 있는 부가어를 함께 쓰기도 한다.

이 때 부가어는 처소격, 도구격, 출처격이란 의미 기능을 지닌다.

- (9) ㄱ. 사단장과 연대장 등 지휘관들과 장병들의 진술을 공개적으로 [듣도록] 해야 한다. (도구)  
 ㄴ. 딸과 이야기하는 것을 안방에서 [들었기] 때문이다. (처소)  
 ㄷ. 안집 라디오에서 인왕산 호랑이 우르릉어쩌구 하는 노랫소리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물었다. (근원)

청각동사 '듣다'가 기본의미로 사용될 때는 (A T)의 논항구조가 성립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듣다'가 다른 의미로 사용될 경우 어떠한 논항구조를 갖게 되는지 알아보자.

- (10) ㄱ. 나는 경희의 칭찬을 [듣고는] 조금 우울해졌다  
 ㄴ.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다.  
 ㄷ. 이 약은 감기에 잘 듣는다.

(10) ㄱ에서 '듣다'는 '(칭찬을) 받다'의 의미로 사용되며 기본의미로 사용될 때와는 달리 피동형이 성립하지 않으며 주체도 행위주가 아닌 경험주의 의미역을 갖는다. (13ㄴ, ㄷ)은 동음이의어로 1항술어(X1)로서 주어는 대상역의 의미를 지닌다. 이처럼 동사는 논항구조에 따라 의미의 변화를 구분하기도 하나 비록 같은 논항구조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취하는 대상격에 따라 기본의미 외에 다른 의미로 확장될 수도 있는데 다음 절에서 보도록 한다.

### 3.2 '듣다'의 다의성

'듣다'의 논항구조를 (X1 X2)의 2항술어임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듣다'는 공기하는 논항에 따라 청각동사로서의 기본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이때 갖게 되는 의미역은 다소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다. '듣다'와 공기될 수 있는 대상역 X2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80말, 23소식, 15소문, 9구중, 4평, 3편찬, 2품문, 2칭찬, 2풍월, 2설교, 1육설, 1불평불만, 1명령, 1청, 1사과, 1요구, 1훈수, 1육, 1형편, 1푸념, 1일방선언, 1칭송, 1설득, 1현황, 1충고, 1혹평, 1설법, 1비난, 1보고...

그리고 이 논항과 공기됨으로써 확장되는 '듣다'의 사전적 의미(삼성문화사 국어대사전, 이송녕외)를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 (11) '듣다'의 사전적 정의  
 ㉠ 소리나 말하는 내용을 귀로 느끼어 알다 (hear, listen)  
 ㉡ 이르는 말이나 시키는 일을 받아 들여 그대로 따라 하다, 부탁대로 청을 들어주다 (grant)  
 ㉢ 글이나 말을 통해 어떤 내용을 알다, 소식 따위를 알다 (hear)

- ④ 명령이나 지시, 또는 칭찬이나 꾸지람을 받다 (receive)  
 ⑤ 충고, 조언 등을 얻다

두 번째의 의미를 가진 '듣다'를 고려대학교 한국어 말모듬 1에서 보면 공기되는 대상역으로 '설득, 요구, 말, 청'이 있다. 특히 대상역 '말'은 기본의미와 확장의미 모두 사용될 수 있으므로 문맥에 따라 평가된다.

(12) 꽃 피우는 비결을 알아다 달라는 말을 [들어] 주었고, 셋째로는 강물을 태워 준 이무기에게서 왜 하늘에 못 올라가는지 이유를 알아 달라는 청을 받는다.

여기에서 '말을 들어주었다'는 '청을 받아 들였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어와 목적어를 취하는 2항구조(X1 X2)임을 알 수 있다.

- (13) ㄱ. 듣다: 주체(X1)가 이르는 말이나 일(X2)을 받아 들여 그대로 따라 하다, 부탁대로 청을 들어주다  
 ㄴ. 나는 이 요구를 아니 들을 수 없다.  
 듣다 : ( E T )  
 피동형: \*이 요구가 나에게 아니 들릴 수 없다.  
 ㄷ. 나는 이 요구를 들어주었다.  
 듣다 : ( A T )  
 피동형 : \*이 요구가 나에게 들려주었다.

지각동사일 경우 경험주로서의 경험주는 구체적인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에 대한 자각을 경험하는 주체가 되는 것으로 동작에 대한 주체의 의도성(intent)의 유무에 따라 행위주와 구분한다. 그러나 기본의미가 아닌 확장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X1이 비록 행위의 주체이기는 하지만 대상을 수명하는 입장에 따라 행위주가 될 수도 있고 경험주가 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될 경우 특별한 논항구조의 차이는 발견할 수 없다.

'듣다'의 세 번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의 논항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4) ㄱ. 듣다: 주체(X1)이 (글, 말을 통해) X2 (내용, 소식)을 알다  
 ㄴ. 나는 {영이에게서, 학교에서} 그 소문{을/에 대해서} 들었다.  
 듣다 : ( E S T )  
 피동형: {?영이에게서, 학교에서} 그 소문이 나에게 들렸다.  
 들리다 : ( S L E T )

'소문, 소식' 등의 논항과 공기될 때는 주체(X1)이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경험주의 의미역을 갖게 된다. 피동형으로 파생될 때는 정보의 근원을 밝히는 출처격이 공기될

때는 어색해지나 처격이나 도구격 등의 부가어는 문장의 구성과 무관하다.

‘듣다’의 의미확장을 고려대학교 한국어 말모듬 1을 이용해 그 빈도를 살펴보면 1314로 축소한 자료 중 동음이의어를 제외한 ‘듣다’는 683개이고 이 가운데 기본의미가 아닌 의미확장으로 사용된 경우는 233개로 약 24.6%로 확장 의미 가운데 (11②)의 의미인 ‘시키는 말을 따르다, 청을 들어주다’로 사용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의미의 확장인 다의 현상은 기본의미와 논항구조가 크게 다르지는 않더라도 의미역이나 파생형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 4. 후각동사

### 4.1 논항구조

고려대학교 말모듬 1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빈도수 2711개 중 ‘말다’가 동음이의어가 아닌 후각의미를 지닌 본동사로 쓰인 것은 217개로 나타난다. 후각동사로서의 기본 의미를 통해 ‘말다’가 어떠한 고유논항을 갖는가를 살펴보도록 하자.

- (15) ㄱ. 말다 : 주체가 코로 냄새를 느끼다  
 ㄴ..       철수는 풀 냄새를 말았다.  
 말다 : ( A       T )  
 피동형 : \*풀 냄새 철수에게 말아졌다.  
 ㄷ. 철수는 정원에서 코로 꽃향기를 맡았다.  
 말다:(A       :       :       T )  
           L       I

후각동사 ‘말다’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고유논항(X1, X2)을 갖는 2항술어이고 부가어로 대상의 출처(Source)나 처소가 쓰이기도 한다. ‘말다’의 2항구조에서 X1은 행위주의 의미역만이 가능하고 경험주는 오지 않는 것이 다른 것과는 다른 점이다. X2 자리에는 감각의 자극원으로 대상의 의미역이 오게 된다.

X1에 올 수 있는 논항은 감각의 주체가 되는 유정물인 반면 지각의 대상이 되는 X2에 오는 논항은 방향성을 가진 어휘뿐이다. 이때 행위주역은 의지, 인지, 행위 유발, 그리고 이동의 특성을 갖고 있으나 의지나 행위 유발 또는 의지만으로도 행위주의 의미역은 성립한다.

후각행동은 일반적인 동작 타동사의 경우와 달리 대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보다 동작의 주체가 외부 대상에 반응하는 것으로 자극원을 의식하고 그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내적 동작이 필요하다. 고려대학교 한국어 말모듬 1 용례를 살펴보면 주어는 행위주의 의미역을 갖는 것은 의지를 가진 <사람> 또는 <유정물> 외에 후각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물도 가능하다.

‘말다’의 기본 의미가 취하는 다른 고유논항인 대상역은 주로 후각의미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냄새, 체취, 향...’ 등과 같은 것이 쓰인다.

실제 고려대학교 한국어 말모듬 1에서 ‘말다’의 기본 의미 용례가 취한 주요 대상역은 다음과 같다.

1갓내음, 1갓냄새, 1꽃내, 1꽃내음, 1꽃향기, 1내, 1내음새, 1내음, 1냄새, 1돈 냄새, 1담내, 1물비린내, 1비린내, 1씻가루, 1술 냄새, 1암내, 1연기, 1연탄가스, 1씻냄새, 1체취, 1토향(土香), 1풀 냄새, 1피냄새, 1향기, 1향내 1향수냄새, 1향, 1흙 냄새

이들 가운데 대상역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거의 모든 명사와 합성이 가능한 ‘-냄새, 내(음)’, 또는 ‘향’으로 행위자가 자극원의 내용을 인식하는 뜻으로 사용된다. 이를 통해 ‘말다’라는 후각동사에는 대상의 실체나 내용을 지각한다는 의미를 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지각동사가 됨을 말해준다.

다른 구문과는 달리 보문을 통해 대상을 구체화하는 문형은 쓰지 않는데 이는 자극원의 냄새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한계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래서인지 문장에서 목적어가 생략된 경우는 총 7회로 전체의 약 3.2%에 불과하다. 후각동사 ‘말다’의 부가어를 보면 처소격, 도구격, 출처격이란 의미역을 갖기도 한다

- (16) ㄱ. 이미 개는 종긋거리고 코로 냄새를 [맡는다.] (도구)  
 ㄴ. 살 속까지 스며든 빗물로부터 스며 나오는 냉랭한 자기 냄새를 [맡았다.] (근원)  
 ㄷ. 벌레가 득시글거리는 더러운 밖에서 늪은 할망구 냄새나 [맡으며] 혼자 지내세요. (처소)

후각동사 ‘말다’가 기본의미로 사용될 때는 (A T)의 논항구조가 성립함을 알 수 있다. 동사는 논항구조에 따라 의미의 변화를 구분하기도 하나 비록 같은 논항구조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취하는 대상격에 따라 기본의미 외에 다른 의미로 확장될 수도 있는데 다음 절에서 보도록 한다.

### 4.2 ‘말다’의 다의성

‘말다’의 논항구조를 (X1 X2)의 2항술어이며 공기하는 논항이 ‘-냄새, 내(음), 체취, 향’으로 한정됨을 보았다. 따라서 후각동사로서의 기본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 확장되는 데에 있어 다양한 논항을 취하는 다른 동사와 달리 관용적인 사용만을 볼 수 있다. 이런 관용적 표현에 따른 ‘말다’의 의미확장을倪昂스 풀이를 겸한 우리말 사전(1993)에서 찾으면 다음과 같다.

- (17) ‘말다’의 사전적 정의  
 ㉠ ① 사람이나 동물이 코를 어떤 물체나 물질에 가까이 대고 공기를 들이마시거나 콧속에 와 닿는 공기를 통하여 어떤 냄새를 알거나 알려고 하는 상태가 되다  
 ② 사람이 어떤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눈치나 김새를 알아차리는 상태가 되다

두 번째 의미의 ‘말다’를 고려대학교 한국어 말

모둠 1에서 보면 공기되는 대상으로 '냄새, 향기, 내'가 있다. 이들은 이 자체로도 두 번째의 의미를 갖지만 주로 다른 수식어에 의해 그 의미가 보충된다.

- (18) ㄱ. 저 자는 이미 며칠 전부터 **냄새**를 [말고] 마을을 은밀히 뒤지고 있었습니다.  
 ㄴ. 영장은 그 말이 풍기는 **자조적인 냄새**를 [말고] 있는 것 같았다.

위에서 '냄새를 맡다'는 관용구처럼 쓰여 '눈치 채다, 낚새를 느끼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어와 목적어를 취하는 2항구조(X1 X2)임을 알 수 있다.

- (19) ㄱ. **맡다**: 주체(X1)이 X2(일의 내용)을 눈치 채다  
 ㄴ. **기자가 이미 사건의 낚새를 맡았다.**  
**맡다**: ( A T )  
 \*피동형 : \*사건의 낚새가 기자에게 맡겨진다.

'맡다'의 의미확장은 기본의미와 비교할 때 특별히 다른 논항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 내의 수식어 차이에 의해 관용적인 뜻으로 이해되므로 논항구조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들 수식어만을 고려대학교 한국어 말모듬 1에서 찾으면 다음과 같다.

1권위주의 냄새, 1귀신같이 냄새(를), 1비밀의 냄새, 1상업적인 냄새, 1억압적인 냄새, 1역사의 남은 향기, 1인품의 향기, 1죽음의 냄새, 1죽음의 비린내...
---

'맡다'의 의미확장을 고려대학교 한국어 말모듬 1을 이용해 그 빈도를 살펴보면 후각동사 '맡다'의 총빈도 수 2711 가운데 기본의미가 아닌 의미확장으로 사용된 경우는 22개로 약 1.01%를 차지하고 있다.

## 5. 촉각동사

### 5.1 논항구조

촉각동사의 대표형을 '느끼다'로 설정하였는데 이 동사는 모든 지각동사의 교체형으로 사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심리동사로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하나의 구문형을 설정하기는 어렵다.

고려대학교 말모듬 1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7273개의 용례를 1040개로 축소한 '느끼다'가 촉각 의미를 지닌 본동사로 쓰인 것은 약 10.8%인 112개로 나타난다. 촉각동사로서의 기본 의미를 통해 '느끼다'가 어떠한 고유논항을 갖는가를 살펴보도록 하자.

- (20) ㄱ. **느끼다** : 주체에게 감각이 일어나다  
 ㄴ. 철수는 눈에 통증을 **느꼈다.**  
**느끼다** : ( E St )  
 L  
 피동형: 눈에 통증이 철수에게 느껴졌다.  
**느끼다** : ( St (E) )

:  
L

촉각동사 '느끼다'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고유논항(X1, X2)를 갖는 2항술어이고 부가어로 처소가 쓰이기도 한다. 이런 2항구조에서 X1은 경험주, X2 자리에는 대개 자극의 의미역이 오게 된다.

'느끼다'의 일반적인 감각과 달리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신체 부위의 자극원에 대한 반응을 나타낸다. 따라서 의식의 있는 주체만이 경험주가 될 수 있다. 실제로 고려대학교 한국어 말모듬 1 용례를 살펴보다도 주어가 생략되더라도 경험주의 의미역을 갖는 것은 의지를 가진 <사람> 또는 <유정물>임을 알 수 있다.

'느끼다'의 기본 의미가 취하는 다른 고유논항인 자극은 온각, 통각, 냉각 등 촉각의미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더위, 따뜻함, 추위, 통증...' 등과 '감각' 이라고만 표현한 추상적인 것 모두 가능하다. 실제 고려대학교 한국어 말모듬 1에서 '느끼다'의 기본 의미 용례가 취한 주요 자극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거의 모든 촉감을 나타내는 형용사의 명사형으로 주체가 자극원의 내용을 인식하는 것이다.

촉각	감촉, 감각, 손, 잡았음, 자극, 맥박...
압각	무거워짐...
통각	통증, 동통.
온각	따스함, 더위, 따사로움, 체온, 뜨거움...
냉각	추위, 냉기, 찬 것, 서늘함...

촉각동사 '느끼다'가 기본의미로 사용될 때는 (E St)의 논항구조가 성립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느끼다'가 다른 의미로 사용될 경우 어떠한 논항구조를 갖게 되는지 알아보자.

- (21) ㄱ. 사서로 군산의 일제 **시대를** 일부나마 [느낄] 수 있다.  
 ㄴ. 소비자도 이제 대우 자동차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만족스러워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21)에서 '느끼다'는 '어떠하다고 인식하거나 인정하다'의 의미로 사용되며 목적어가 자극이라기 보다 하나의 대상 의미역을 갖는다. 이들은 2항술어이기는 하지만 기본의미와는 달리 (E T)의 의미역을 지닌다. 이처럼 동사는 논항구조에 따라 의미의 변화를 구분하기도 하나 비록 같은 항구조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취하는 대상에 따라 기본의미 외에 다른 의미로 확장될 수도 있는데 다음 장에서 보도록 한다.

### 5.2 '느끼다'의 다의성

'느끼다'의 논항구조가 (X1 X2)의 2항술어임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느끼다'는 공기하는 논항에 따라 촉각동사로서의 기본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이때 갖게 되는 의미역은 다소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다. '느끼다'와 공기

될 수 있는 대상 X2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3전술, 2숨결, 1리듬, 1일제시대, 1대기, 1시선, 1문제, 1현상, 1인기의 단맛, 1변화, 1저하, 1분위기, 1호름, 1감정, 1참맛...

그리고 이 논항과 공기됨으로써 확장되는 ‘느끼다’의 사전적 의미(삼성문화사 국어대사전)를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22) ‘느끼다’의 사전적 정의

- ㉠ 바깥 사물의 영향을 받아 마음에 깨닫다 (be affected)  
 ㉡ 감각이 일어나다(feel)  
 ㉢ 마음이 움직이다(be moved)  
 ㉣ 어떠하다고 인식하거나 인정하다

두 번째의 의미를 가진 ‘느끼다’를 고려대학교 한국어 말모듬 1에서 보면 공기되는 대상역으로 ‘내음, 냄새, 맛, 체취’ 등이 있다.

(23) ㄱ. 느끼다 : 주체(X1)이 분위기, 상황(X2)가 어떠한지 인식하다

나. 나는 시험장에서의 분위기를 느꼈다.

느끼다:( E T )

피동형:시험장에서의 분위기가 나에게 느껴졌다.  
 느껴지다 : ( T (E) )

기본의미가 아닌 확장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X1은 경험주로서의 의미역을 갖는 반면 X2는 자극으로 작용하면서 대상의 의미역을 갖게 된다. 또한 ‘느끼다’는 좁은 의미로 촉각동사로 사용되지만 실제 용례에서는 감각을 표현한 모든 동사의 상위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사용에서는 각 지각동사와 같은 논항구조를 지닌다. 이외에 ‘느끼다’는 심리동사로도 사용될 수 있다.

(24) ㄱ. 그의 입을 아라미드 섬유로 꿰매어 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껴야] 했다.

나. 타락된 교총조직에 대한 깊은 희의를 [느껴] 손씨와 협의, 후보 추대를 포기키로 했다

이들은 논항구조와 의미역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나 X2에 나오는 대상이 심리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 특기할 사항이다.

‘느끼다’의 의미확장을 고려대학교 한국어 말모듬 1을 이용해 그 빈도를 살펴보면 용례를 1040으로 축소한 자료 중 동음이의어를 제외한 ‘느끼다’는 1028개로 추출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촉각적 의미가 아닌 감각의미 혹은 확장의미로 사용된 경우는 916개로 약 87.8%이다.

의미의 확장인 다의 현상은 기본의미와 논항구조가 크게 다르지는 않더라도 의미역이나 파생형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동음이의어는 논항구조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본고에서는 대표적 지각동사를 중심으로 논항구조와 의미확장인 다의성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의미확장이 이루어진 경우 같은 논항구조라 해도 다른 의미역이 할당되거나 사역형이나 피동형의 형성에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 반면 동음이의어인 경우 대부분 다른 논항구조를 갖고 있음을 보았다. 그리고 이런 차이를 고려대학교 한국어 말모듬1을 통해 기본의미와 확장의미의 실제 사용 빈도를 조사하고 다양하게 공기되는 논항 명사들을 알아보았다.

이런 분석 과정을 통해 기본의미는 공기되는 논항에 따라 의미가 확장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논항구조라 해도 다른 의미역을 가질 수 있으며 파생형 구성도 다름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각행위를 중심으로 지각동사를 살펴 감각의 융합이나 전이현상을 표현한 동사는 다루지 않아 주관적 판단이나 다른 감각표현은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아울러 개별 지각동사들의 자세한 문법과 의미 분석도 앞으로의 과제로 미룬다.

## 참고문헌

- 장범모(1997), WordCount 프로그램 (Version 5)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장범모·차준경(1996), “코퍼스, 파생어, 생산성”, 『인지과학』, 7-2  
 권주예(1997), “국어의 감각동사 연구”, 국어국문학 논문집13, 서울대 사대 국어국문학 연구회.  
 김홍규·장범모(1996), “고려대학교 한국어 말모듬 1(KOREA-1 CORPUS): 설계 및 구성”, 『한국어학』, 3, 한국어학회.  
 노대규(1988), 「국어 의미론 연구」, 서울:국학자료원  
 류시중(1989), “한국어 동사 ‘보다’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박용수(1989), 「우리말 갈래 사전」, 서울:한길사.  
 송복승(1995), 「국어의 논항구조 연구」, 서울:보고사  
 신현숙(1986), 「의미 분석의 방법과 실제」, 서울:신문화사.  
 우형식(1986), “지각동사 ‘보다’의 경험과 추정”, 연세어문학19.  
 이승녕의(1993), 『국어대사전』, 서울:삼성문화사.  
 정재운(1989), 「우리말 감각어 연구」, 서울:한신문화사.  
 홍재성 외(1997), 「현대 한국어 동사 구문 사전」, 서울:두산동아.  
 황병순(1990), “감각동사 ‘보다’와 행위동사 ‘보다’”, 『배달말』, 14.  
 Cruse, D. A.(1986), *Lexical Semantics*, N Cambridge University Press. 임지룡·윤수 옮김(1989), 「어휘의미론」, 대구:경북출판부.  
 Dowty, D.(1979), *Word Meaning and Montague Grammar*, Dordrecht: Reidel.  
 Levin, B.(1993), *The Classification of English Verb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Wierzbicka(1996), *Semantics-Primes and Universals*, N.Y.: Oxford Univ. Press.

## 6. 결론